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2018년

불시착한 우주선을 연상시키며 주변 경관과 색다른 조화를 이루는 건축물. 세계적 여성 건축가인 자하 하디드가 설계하고 착공 5년 만인 2014년 3월 21일 개장한 그곳. 서울 동대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입니다. 컨벤션, 전시, 공연, 패션쇼 등이 상시 이뤄지는 공간인 DDP는 세계 최대 규모의 3차원 비정형 건축물로 설계됐습니다. 지하 3층, 지상 4층 규모로 알뜰터, 배움터, 살림터, 디자인 장터, 동대문역사문화공원 등 5개 시설에 모두 15개 공간을 갖추고 있죠. DDP가 들어서기 전의 동대문은 한국 스포츠의 메카로 명성을 날렸습니다. 국제 경기를 치를 수 있는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배구장, 테니스장을 구비한 스포츠 콤플렉스인 동대문운동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대문운동장은 1925년 개장한 우리나라 최대 규모의 근대식 종합운동장이었습니다. 개장 당시에는 경성운동장으로 불리다가 해방 후 서울운동장이란 새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서울운동장은 북한만행 규탄 집회, 광복절 기념행사, 파월장병 귀국환영식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1970년대 국가대표 축구경기나 고교야구대회가 열리는 날이면 수많은 인파가 몰려 그야말로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이곳을 무대로

활약했던 최동원(야구), 박노준(야구), 차범근(축구) 같은 스포츠 선수들은 지금의 아이돌 스타 못지않은 인기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서울 하계올림픽(1988년)을 4년가량 앞둔 1984년 9월 잠실 서울종합운동장이 개장하면서 서울운동장(동대문운동장)은 쇠락의 길을 걸었습니다. 잠실 서울종합운동장의 기세에 밀려 이름도 동대문운동장으로 변경됐습니다. 이후 주요 스포츠 경기가 잠실로 집중되면서 동대문운동장의 쓸모는 자연스럽게 사그라들었습니다. 동대문운동장에서 열린 마지막 프로축구경기는 2000년 10월 22일 수원 삼성과 성남 일화의 2000 아디다스컵 결승전이었습니다. 마지막 야구경기는 2007년 11월 13일 추계서울특별시 교교야구 결승전(배명고 vs 충암고)이었고요. 결국 동대문운동장 축구장은 2003년 간판을 내리게 됐고, 2004년 1월 그 자리에 동대문 풍물벼룩시장이 들어섰습니다. 야구장도 마지막 경기 후인 2007년 12월 축구장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운명을 맞았습니다. 우리나라 스포츠의 산실에서 디자인 메카로 변신한 DDP의 어제와 오늘을 살펴봅시다.

1972년 6월 2일 서울운동장에서 열린 한국 국가대표 상비군과 브라질 산투스팀 경기에서 축구황제 펠레가 자신의 1천204번째 골을 넣고 있다. 연합뉴스 DB

1972년



서울 동대문의 랜드마크로 자리매김한 동대문디자인플라자의 웅장한 모습. 사진 / 조보희 2018.10.1

1982년 3월 27일 서울운동장 야구장에서 열린 한국프로야구 개막식. 연합뉴스 DB

1982년



2007년 3월 19일 철거가 확정된 동대문운동장. 당시 왼쪽 축구장은 풍물 벼룩시장으로, 오른쪽 야구장은 경기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연합뉴스 DB

2007년

